

# 미국식 표현에 영향을 미친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

박 배 영

## A Study on Emotional Experience Affecting American Expressions

*Bae-yung Pak*

### 〈목 차〉

- |         |                         |
|---------|-------------------------|
| 1. 서 론  | 3. 정서경험에 의하여 조어진 미국식 표현 |
| 2. 정서경험 | 4. 결 론                  |

###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American expressions describing emotional experience of American people. Psychologists employ the following six main classes to categorize emotions. They are primary emotions, emotions pertaining to sensory stimulation, to self-appraisal, and to other people, appreciative emotions and moods.

American expressions of emotions are created not only by exaggeration, simile and metaphor but also by physiological phenomena and actual behavior. These colorful expressions convey the feeling and emotion, and heighten persuasiveness.

### 1. 서 론

본 논문은 인간의 행동중에서 언어생활에 관련되는 심리학적인 현상 즉 정서적인 경험을 연구하여 이것이 미국식 표현의 조어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특히 감정이 어떻게 언어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그의 언어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추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정서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어휘가 풍부하다는 것을 David Krech와 Richard S. Crutchfield 그리고 Norman Livson이 공저한 Elements of psychology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Our language is immensely rich in terms for communicating emotional experience, so much so that one may wonder whether emotion can be dispensed with if a full account of human behavior is to remain the challenge of psychological theory.<sup>1)</sup>

우리들은 어떤 점에서는 모두가 심리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들은 심리학을 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더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심리학은 인간행동의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이며, 그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이다. 물론 모든 형태의 행동이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기술은 단순한 관찰에서 복잡한 실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다. 다른 학문과 같이 심리학에도 많은 전문분야가 있으며, 그것은 다음 세가지 이다.

첫째는 특별한 행동분야이며, 둘째는 연구방법이고, 셋째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Colorado 대학의 Lylee. Burner, Jr와 Bruce Rekstrand가 공저한 Psychology, its Principle and Meanings에서 연구분야, 방법 및 환경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Areas of Research

1. Relations between behavior and non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chemicals (drugs), the physical properties of stimulation, genes, and the nervous system (Chapter 2)
2. Perception of stimulation from one's environment, the first psychological step in most behavioral episodes (Chapter 3)
3. Learning and memory; processes in the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knowledge and skill(Chapter 4 and 5)
4. Using one's knowledge and skill for purposes of problem solving, creativity, and other forms of thinking (Chapter 6)
5. Motivation, arousal, and intention, the driving forces behind our actions (Chapter 7)
6. The development, with age and experience, of perception, learning, thought, motivation, and other behavioral phenomena and processes (Chapter 8)
7.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 patterns that make each of us unique and individual (Chapter 9)
8. Social interaction: the processes by which we influence each other's behavior (Chapter 10)
9. Unusual or abnormal behavior patterns, behavior psychology, its causes and its treatment (Chapters 11 and 12)

#### Methods

1. Individual case study
2. Naturalistic observation
3. Tests, interviews, and surveys
4. Experiments

#### Employment

1. Colleges and universities 40%

1) David Krech, Richard S. Cautchfield and Mormal Livson, Elements of Psychology (Alfred A. Knopf. 1969) p. 558.  
2) Lylee. Bourne, Jr, and Bruce R. Ekstrand, Psychology, Its Principles and meanings,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12.

2.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12%
3. Clinics	11%
4. Industry	6%
5. Government	14%
6. Private practice	6%
7. Other	11%
Total	100%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 까닭으로 심리학의 목표설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심리학의 정의가 행동의 과학적인 연구와 행동원리의 조직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세가지 목표를 행동의 측정과 묘사, 예언과 통제 및 이해와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의 최초의 학파는 구조주의이었고 주로 Wilhelm Wundt(1832~1920)가 주장한 것이며, Wundt는 심리학의 주제는 경험이라고 주장했으며, 과학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인 분석을 모든 심리학적 현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주의 심리학이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의 심리학계를 지배한 후에 기능주의 학자가 생기게 되었고 William James, James Cattell, John Dewey 그리고 Thorndike 등이 중심적인 학자들이었다. 기능주의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정신의 구성요소인 의식이었다. 그들은 인간정신의 구조내용의 순간적인 관찰보다는 오히려 인간생활의 큰 부분을 특징지우는 의식의 계속적인 흐름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배움 즉 사실과 기술의 습득을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능주의 심리학자들도 여러가지 심리학의 과정을 연구했으나 하나의 시중일관되고 조리가 선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은 최초의 순수한 미국의 심리학이었으며, 명확하고 뚜렷한 이론적인 체계를 확립했다. John B. Watson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시작했으며, 그는 개인적인 정신상태는 과학의 주제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공적인 현상 즉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반응, 행위등이 연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고 예언할 수 있는 자극-반응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심리학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Gestalt심리학은 구조주의에 대한 다른 종류의 반응이었으며 20세기초에 Mas Wertheimer가 창시했으며 행동주의가 미국 심리학계를 지배한 때와 같은 시기였다. Gestalt는 형식이나 혹은 조직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동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행동주의가 학습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Gestalt심리학은 인식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 John B. Watson은 그의 저서인 "Behaviorism"에서 아래와 같이 내관적 혹은 주관적인 심리학과 행동주의 혹은 객관적인 심리학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Two opposed points of view are still dominant in American Psychological thinking-introspective or subjective psychology, and behaviorism or objective psychology. Until the advent of behaviorism in 1912, introspective psychology completely dominated American university psychological life.

The conspicuous leaders of introspective psychology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were E. B. Titchener of Cornell and William James of Harvard. The death of James in 1910 and the death of Titchener in 1927 left introspective psychology without emotional leadership. Although Titchener's Psychology differed in many points from that of William James, their fundamental assumptions were the same. In the first place, both were of German origin. In the second place,

and of more importance, both claimed that consciousness is the subject matter of psychology.

Behaviorism, on the contrary, holds that the subject matter of human psychology is behavior of the human being. Behaviorism claims that consciousness is neither a definite nor a usable concept. The behaviorist, who has been trained always as an experimentalist, holds, further, that belief in the existence of consciousness goes back to the ancient days of superstition and magic.<sup>3)</sup>

최근에는 인간을 정보의 처리장치로 보는 심리학의 학설이 생겼으며, 이 학설은 인간이 항상 그들의 환경과 서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 상호작용에 관계되는 인식적 혹은 정신적인 노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적인 성취라고 간주되고 있다. 언어는 문화마다 다르지만 각 문화의 언어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고 기억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 준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이해하는 보통의 행위는 정말로 복잡하고 현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구조는 음, 낱말 그리고 문장으로 되어 있다.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며 언어의 구조적 요소는 이 기능에 관련되어 있다. 실재는 우리들은 문장만으로는 전달되는 내용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문장은 이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과 상호작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반적인 지식이 언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어를 이해하는 우리들의 능력은 이 일반적인 지식에 정밀하게 좌우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이해하려는 재료를 내포되어 있는 정보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우리들이 어떤 문장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된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미의 다른 레벨이 순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말하자면 낱말은 문장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고 문장은 내용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공헌한다. 동시에 내용은 부분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고 문장은 부분적으로 구성된 낱말의 의미를 정한다. 언어를 이해하는 매일의 활동은 놀랄만한 정보처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사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들이 이 세계에 관하여 지각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이 세계를 묘사하는데 쓰는 언어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생각하면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필리핀 군도에 사는 한 부족은 92가지의 쌀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아라비아에서는 낙타에 관한 6,000가지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에스키모인들은 20가지의 눈의 종류를 말하는 낱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언어와 생활경험과의 복잡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인간은 풍부한 정서생활을 가지며 각 국민들 제각기 다른 정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미국 국민들의 정서경험이 어떤 정서에 관한 미국식 표현을 만들어 냈는가를 규명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3) Hohn B. Watson, Behavioris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0) p.1-2.

## 2. 정서 경험

인간의 정서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심리학연구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심리학자들은 정서를 심리학과 관계없는 현상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을 궤방한다고 생각했었다. 바로 그 이유 까닭으로 조직적으로 인간의 정서를 분류하려는 기도는 드물고 불완전했다. 정서에 관한 현대학설의 종류는 편의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약간 중요하다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자는 정서를 어떤 생리학적인 혼란의 부산물과 질서있는 행동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서를 과학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의 학설은 반대의 입장을 갖는다. 말하자면 정서는 생리적인 기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경험과 행동의 방향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학설의 진리여부에 관계없이 정서경험이 언어에 미친 영향은 큰 것이며 특히 미국식 표현의 조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정서를 6가지 종류로 David Krech는 “Elements of Psychology”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Emotions

The four dimensional schema can be used to characterize any specific emotional state. In order to categorize any specific emotions into more general types, we employ the following six main classes, starting with the most primary and goal-directed. Only some of them will be discussed.

1. Primary emotions, for example, joy, anger, grief
2. Emotions pertaining to sensory stimulation, for example, pain, disgust, horror, delight
3. Emotions pertaining to self-appraisal, for example, shame, pride, guilt
4. Emotions pertaining to other people, for example, love, hate, pity
5. Appreciative emotions, for example, humor, beauty, wonder
6. Moods, for example, sadness, anxiety, elation

심리학에서 정서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많은 정서적인 경험이 과학적인 연구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기쁨, 노여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이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끝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이다. 기쁨의 강도는 유발된 행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긴장의 정도에 좌우된다. 그 목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단순한 만족감을 가질 것이며, 중요하고 갈망하는 목표일 때는 매우 강한 기쁨을 느낄것이 분명하다. 기쁨은 목표달성과 더불어 일어나는 긴장완화의 정서적인 대응이므로 목표가 달성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갑작스러움이 기쁨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경험된 기쁨에는 질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으며 목표의 달성과 긴장완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필수적인 상태의 결정요소이다.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다.

노여움을 일으키는 상태는 인간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장의 축적과 더불어 목표달성에 대한 계속적인 좌절감이 있는 경우이다. 초기에는 가벼운 노여움을 느끼게 되지만 좌절감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진정한 노여움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마침내 격노상태에 이르게 된다. 회방을 놓는 것이 모두 노여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장애물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무엇이 그의 목표달성의 장애물인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노여움은 유발되지 않으나, 회방을 놓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악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노여움이 일어나며 회방을 놓는 상대에 대하여 격노를 나타내게 된다.

두려움은 위험한 일을 회피하려는 정서이며 이에 는 도피도 포함된다. 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이 사회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이며, 어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인간행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려움이 기본적인 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인정한다. 두려움의 기본적인 상태는 위험물과 위험을 주는 상태의 인식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중요한 일은 그 위험을 다루는 힘이나 혹은 능력의 부족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 위험에서 자기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모른다면, 특히 그가 도피할 길이 봉쇄된다면 어떤 압도적인 힘, 즉 지진 혹은 대홍수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 이런 힘이 유발된다. 우리들의 보통의 환경에서 기대하지 못한 변동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들은 항상 이 세계를 우리자신을 보호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질서속에서의 혼란은 즉각적인 두려움을 일으킨다. 두려움은 어떤 다른 정서보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공포의 상태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슬픔은 기쁨, 노여움 그리고 두려움이 목표의 추구나 혹은 위험에서의 도피와 관련되어 있는데 반하여 찾은 것이나 혹은 가치 있는 것의 상실과 연관되어 있다. 슬픔은 조용한 정서로 간주되고 있으며 긴장과 활동의 상태로 특징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슬픔의 광범위한 표현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긴장과 활동의 정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했을 때의 인간의 슬픔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정서의 마비상태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후에 깊은 침울과 절망이 그 사별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번갈아 일어나는 기간이 계속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다른 반응 즉 불면증, 식욕의 상실, 신경과민, 사회적인 움츠림등의 상태가 수반된다. 신체적인 고통은 정서를 일으키게 되는 강렬한 신체적인 자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강도가 낮을 때는 고통의 감각은 자신에게는 말초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강도가 높을 때는 불쾌한 정서상태가 야기되고,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는 가장 강력한 정서의 동요상태가 초래된다. 고통의 상태의 이해는 정서가 야기되는 강도와 관계가 있다. 고통과 두려움은 그것을 야기시키는 상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으로 줄어진다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고 쓸 수 있다.

많은 물건과 사건이 즐거운 정서를 야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소한 유쾌함, 만족, 최고의 황홀감까지 정도가 다르다. 즐거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거의 무진장이다. 즐거움은 만저지고 애무될 때 신체안에서도 유발되고, 신체의 움직임과 기능에서도 느껴지며, 때로는 신체가 느끼는 필요성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정서적인

즐거움은 다른 감각적인 즐거움의 외부적인 물건의 형태, 색깔, 소리, 맛 그리고 냄새에서도 느껴진다.

목표달성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기본적인 성취나 혹은 개인의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 자존심과 수치심의 정서가 야기된다. 대체로 개인의 자존심은 그의 행동이 그의 이상적인 자아개념과 일치한다는 인식의 결과로 생긴다. 반대로 수치심은 그의 행동에 그의 자아의 이상적인 모습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단순히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회속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명령에 따라서 처세하게 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존심과 수치심은 사회적 환경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상당한 정도로 외적인 표준이 결국은 내화되어 체득된다. 어떤 개인이 원래 외적 자신으로 인식하게 된 수준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고 그들이 개인의 자아의 연속적인 부분으로 형성되고, 더 이상 사회적인 힘의 적용에 의존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내화되는 정도와 종류는 많이 있다. 어떤 국민과 문화에 있어서는 인간행동의 표준은 고도로 내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집단의 외적 승인 혹은 불찬성은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어떤 개인은 그의 집단이 그 행동을 불찬성할 때는 수치심을 느끼며 그 반대로 그의 집단이 그것을 승인할 때는 자존심을 가지게 되는 타율적인 생활을 계속한다.

죄의식과 수치심은 때때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결코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죄의식은 나쁜짓을 한 느낌이며 혹은 법이나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갖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된다. 죄의식을 유발시키는 필수적인 환경은 어떤 상태에 의하여 요구되는 올바른 혹은 도덕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죄의식은 하찮고 빨리 없어지는 양심의 가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죄의식이 괴로와하는 자기평가의 연장된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인류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덕적인 금지령이 더욱 많이 창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회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금지령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그 행위가 외적인 권위에 대한 성공적인 반항이나 자치와 자아의 힘의 표현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부모와 자식, 동성의 친구,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낭만적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직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단순한 결합과 사랑을 구별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감정은 단순한 결합과 사랑이다. 서로 많이 사랑하는 남녀는 덜 사랑하는 남녀보다 눈의 접촉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랑은 부착의 강한 감정과 친밀한 의사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만족과 안전이 자기자신의 일처럼 중요하게 될 때 사랑의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공헌함으로써 자기도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고린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랑의 말씀이 있다.

사랑은 참아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덜어주고  
 모든것을 믿고 모든것을 바라고  
 모든것을 견디어 냅니다.

더우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공통경험과 투자를 가진 한 단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얽매이듯이 이 단위에 얽매이게 된다. 그의 동반자의 복지를 돌봄으로서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집단에 공헌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고 배경과 태도가 자기와 유사하고 육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극과 도움의 보상을 갖추며 우리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동시에 이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아를 헌신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다.

혐오감도 사랑처럼 지속적인 성질과 주기적으로 유발되는 강한 정서라는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조건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자신의 노출과 관계가 있다. 혐오감은 다른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강조된다. 목표달성의 노력이 꾀방될 때, 혹은 위협을 받을 때 혹은 질투나 선망을 느낄때 혐오감이 강렬해진다. 모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쉽게 집중된다. 많은 부정적인 성격은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감정의 목표물이 된다. 혐오감의 핵심은 미움을 받는 대상을 파괴하려는 욕망이다. 혐오감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과는 다르며, 싫어하는 감정은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싫어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지는 않고 다만 회피할 따름이다. 혐오감은 기본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감정이다. 우리들은 미워하는 대상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것을 파괴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혐오감은 안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출신을 통하여 어떤 개인이 자기가 싫어하는 집단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특정종교나 혹은 소수민족 혹은 경제계급 등이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싫어한다. 자기 혐오감은 그가 멀리 당하는 집단과 이별할 수 없을때 특히 강해진다.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물건들이 있으며, 그 물건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손을 댄으로 강한 기피경향을 유발시키고, 매스꺼움을 느끼고 고통하기도 한다. 혐오감은 그 물건을 볼 뿐 아니라 그 물건이 피부에 접촉될 때 더욱 많이 느껴진다. 혐오감에 의하여 우리들은 매스꺼움과 같은 불쾌감을 의미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진



정한 혐오감은 자극적인 대상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야기된다. 어떤 국민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과 교체할때 혹은 일본인들이 제일한국인을 대할때 이런 혐오감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 분명히 개인의 문화수준과 특수한 과거의 경험이 어떤 대상이 혐오감을 야기시키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정서경험에 의하여 조어진 미국식 표현

인간은 집단속에서 살고 있으며, 여러가지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언어생활도 집단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집단은 개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집단은 크기, 친밀도와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받으며 서로의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얼굴, 자세 혹은 몸짓의 신호처럼 암시적인 것도 있다.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도 특별한 태도와 행동이 그 집단의 나머지 구성원들에 의하여 승인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다.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도 그가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가 그의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는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상호의존을 이루게 하고, 언제나 그 집단의 목표에 맞게 행동한다.

한 개인의 특정한 종교집단, 직업집단 등에 대한 소속감은 그 행동에 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접적인 대화나 그 집단의 소속감은 모든 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나타내게 한다. 즉 집단의 구성원은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개인이 특정한 집단과의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느낄때는 그는 이미 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중지하며 그의 소속감을 상실하게 된다. 집단은 많은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사업기능이고 둘째는 사회기능이다. 한 집단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외과수술을 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때 그 집단은 사업기능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함께 걸거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유토론에 참가할 때는 우정과 감정적인 일치감을 얻는다는 사회적인 보상을 한 집단은 한가지 기능이나 다른 기능을 전문적으로 한다. 사업체는 사업에 관련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며 친구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집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모든 집단은 어느 정도 두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직업이 한가지 일에 함께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가끔 느끼며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가 그 집단이 일올하는 방법에 깊은 영향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그의 태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을 변경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진술을 하도록 권유받을 수가 있다. 즉각적인 요구에 대한 그의 승락은 그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 집단에 의한 요구의 거절을 회피하는데에서 조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단에 동의하는 그의 진술은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니고 행동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일시의 과정은 인간의 발전에 중심이 되는 일이다. 사람들은 많은 집단 즉 민족, 종교, 직업적인 집단에

서의 소속감에서 자기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서 동일시의 과정은 태도의 채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를 채택하고 구성원은 그 집단의 태도를 택한다.

동일시의 과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자신을 정의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동일시의 과정은 사람이 그가 채택한 견해를 실제로 믿는다는 점에서 승인과는 다르다. 그러나 동일시의 과정을 통하여 채택된 태도는 그 사람의 장점에 의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적인 집착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에 언제나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사람의 그 집단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그 중요성을 상실하면 그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내화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것을 체득하는 사람은 하나의 태도가 그의 가치관의 조직과 일치할 때 그것을 선택한다.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그의 감정적인 집착과 영향은 개인이나 집단이 통찰력이 있고 믿을만하다는 그의 믿음만큼 중요하지 않다. 내화작용의 과정이 보통 가장 지속적인 것이며, 내화작용 과정을 통하여 체득된 태도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어져도 계속될 뿐 아니라 그것과의 개인의 관계가 소멸되어도 지속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이루는 요소는 네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의 근원이며 그것은 의사소통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작가이다. 둘째는 메시지이며 의사소통의 내용, 형태 그리고 조직이다. 셋째는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상황이나 매체이다. 넷째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전달되는 상태이나 사람의 태도가 설득력 있는 전달에 의하여 변경되는 정도는 전달자가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만큼 그 전달자가 누구인가에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전달자가 통찰력이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들이 잘 설득된다. 설득자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사람들이 그 설득자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좌우된다. 순응주의는 사람이 그의 동내의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그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며 그가 특정한 정치적인 태도를 지지할 때는 그가 그의 집단의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그가 소속되고 있는 집단의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그 집단의 규범을 순종하고 있는 증거이다. 순응주의는 가끔 그 집단의 표준이나 관례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서 파괴적인 힘에서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해방시킬 수도 있다. 사람이 따를 공통의 표준이 존재하는 행동을 예측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만약 언어사용에 있어서 우리들의 반수가 “No”를 의미하기 위하여 “Yes”를 사용하고 미소가 즐거움 처럼 고통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혼란하게 될지 상상할 수도 없다.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안에서 그들의 독특한 언어를 발전시켜 왔으며 영국사람들과는 다른 자체의 미국식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 Robert B. Costello가 편집한 “American Expressions” 속에서 그는 이렇게 미국식 표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American English is particularly rich in colorful words and Phrases, partly because of the large size of the language’s vocabulary and partly because American are not afraid of change or experiment in language. We enjoy picturesque phrases; they may be colorful, humorous, ironic, fanciful, blunt, nasty, vulgar-but they are, above all, expressive and creative.”<sup>4)</sup>

4) Robert B, Castello, American Expression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p. 21.

정서경험을 표현하는 미국식 표현을 분석하면 미국민성의 여러가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의 대화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구들이며 비록 인종은 다르지만 정서경험을 나타내는 미국식 표현에는 인간가족의 공통적인 일면이 있으며, 한국식 표현과 유사한 것이 많은 것은 인간이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성을 가진 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이런 미국식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인의 생활의식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의 연구에도 필수적인 것임이 틀림없다.

기쁨을 표현하는 어구<sup>5)</sup>에도 우선 금전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feel like a million* 혹은 *feel like a million dollars*이며 미국 사람의 꿈의 하나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며 그 뜻은 최선의 건강상태와 최고의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I feel like a million this morning. (I feel fine this morning)* 혹은 *He had a headache yesterday but feels like a million dollars today. (He feels wonderful today)*의 예문을 들 수 있다. 종교적인 것의 *heaven on earth* 혹은 *paradise on earth*라는 어구는 지상의 천국 혹은 지상의 낙원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구름을 써서 *have one's head in the clouds*와 *on cloud nine*등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쁠 때에는 세계의 정상에 오른 기분을 느낌으로 *on top of the world* 혹은 *sit on top of world* 라는 표현도 쓴다. 그 밖에 *jump for joy*등의 기뻐서 뛰는 것과 남의 뒤통치를 친다는 *kick up one's heels*, 또한 영국의 인형극 *Punch and Judy*의 익살 꾸러기 주인공처럼 기쁘다는 *pleased as Punch* 등의 어구가 있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심장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have one's heart in one's mouth*, *have one's heart miss a beat*, *have one's heart skip a beat*, *have one's heart stand still*, *heart in one's mouth*, *heart in one's boots* 그리고 *weak-hearted* 등이 있으며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때 심장이 심하게 고동치는 생리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몸이 떨리기도 하기 때문에 *shake*를 써서 표현한 *shake in one's boots*, *shake in one's shoes* 그리고 *shake like a leaf* 등이 있으며, 우리말도 떨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scare*를 사용한 것이 약간 있다. 즉 *scare out of one's wits*, *scare the daylights out of*, *scare to death*, *scare stiff* 그리고 *scaredy-cat* 등이 있다. 다음으로 두려움이 안색을 변화게하는 현상을 이용한 *change color*, *white with fear*등이 있으며, 또한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에도 있듯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살피고 있으니 *afraid of one's shadow*라는 표현이 생긴 것이라고 간주된다.

미국식 표현중에 노여움을 묘사하는 어구가 많은 것은 인간생활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화내고 불쾌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노여움을 느끼면 피가 끓고 얼굴이 상기되거나 또는 창백하게 되고 입에 거품을 내고, 심지어는 심장이 약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관이 파열되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니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즉 *make one's blood boil*, *purple*

5) 여기에 인용하 어구는 다음 두 책에서 인용했음.

- (1) Maxine Tull Boatner, A Dictionary of American Idioms, N. Y. (Borron's Educational Series, Inc, Woodbury, 1975)
- (2) Robert B Costello, American Experi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with rage, see red, blue in the face, steamed up, foam at the mouth 그리고 burst a blood vessel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blow a fuse, blow a gasket. blow one's cool, blow one's stack, blow one top 등은 to become extremely angry 혹은 express rage in hot words 등의 뜻이 있다. Anger is a sharp madness라는 문장이 있듯이 노여움은 짧은 광기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mad as a hornet, mad as a wet hen 그리고 mad as hops 등이 있고 get를 이용한 get one's back up, get one's goat, get one's dander up, get one's Irish up 등이 있다. 노여움을 느낄때 인간을 뛰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되기에 hit the ceiling 혹은 hit the roof라는 표현이 있고, 또한 냉정을 잃기 쉬우니 lose one's cool 혹은 lose one's temper라는 어구도 생긴다. mad as a wet hen이라는 어구는 양계업자에 의하면 닭이 물에 젖었을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므로 이 어구의 직유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지만 잘 사용되는 어구이다. mad as hops는 사람이 화가 많이 났을때 미친듯이 짱충짱충 뛰어다니는 표현이다. 혐오감을 묘사하는 어구에는 첫째로 feed을 사용한 것이 많다. 즉 fed to the gills, fed to the teeth, fed up 등인데 이 어구들은 어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혐오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turn을 이용한 turn off, turn one's stomach 등이 있는데 turn off는 to disgust, bore by being intellectually, emotionally, socially or sexually unattractive 라는 뜻이며 turn one's stomach는 The smell of that cigar was enough to turn our stomach 등으로 사용하여 to make you feel sick라는 뜻으로 쓴다. 공포감을 표현하는 어구에서 blood를 이용한 것이 많다. 물론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Blood runs cold, Blood turns to ice, freeze one's blood, freeze the blood in one's veins, make one's blood run cold 등은 you are chilled or shivering from great fright or terrified 혹은 you are terrified or horrified 라는 뜻으로 쓰인다. 우리말의 표현에도 공포감을 느낄때는 머리카락이 선다는 말처럼 hair stand on end 혹은 make one's hair stand on end 등의 어구가 있고, 등뼈가 오싹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spine-chilling, spine-tingling 등이 있으며 jump out of one's skin는 이렇게 쓰이고 있다. 즉 The lightning struck so close to Bill that he almost jumped out of his skin. (Bill was badly frightened when the lightning struck close to him 뜻이다.

수치심을 가질때 사람들은 남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며, 얼굴을 감추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어구가 수치심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즉 can't hold one's head up, hide one's face, hide one's head, hang one's head, hit on all-time low 그리고 hit bottom 등이 있다. 수치심을 느낄때 얼굴이 붉어지고, 자책감을 가지게 되므로 ears burn 그리고 kick oneself 등이 사용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의 모습을 그려서 묘사한 tail between one's legs라는 어구이다. 예를 들면 The boys on the team had boasted they would win the tournament, but they went home with their tails between their legs. (They lost the tournament and were disappointed and ashamed.) 자존심을 묘사하는 어구는 사람의 머리와 관련되는 것이 많으며, 사람들은 자존심을 느낄때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니며 머리가 커짐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구가 사용된다. 즉 hold one's head up, the big head, big-headedness, cockiness, swelled-head, smelling in the head 그리고 top-heaviness 등이다. 또한 사람은 자존심을 가질 때 가슴을 펴는 동작을 하므로

chest-expansion이라는 표현도 있고,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뜻으로 I-love-me 혹은 E-gotism 등의 어구가 있고 모자에 깃을 달아서 멧을 부린다는 feather in one cap라는 표현도 있다.

사랑을 표시하는 어구에는 crazy와 mad를 사용해서 사랑이 미친 정서 상태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 것은 동서양을 통하여 공통적인 것이다. 즉 be crazy about, be crazy for, be crazy in love, be mad for, be nuts about, be nuts for, be nuts over 그리고 be nutty 등이 있다. 이외에는 be wild about, fall for, fall head over heels, love to death, love to pieces 등의 강한 표현도 있다. 동정심을 나타내는 어구는 heart를 사용한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find it in one's heart, have a heart, have one's heart in the right place, heart goes out to, heart of gold, large-hearted, open-hearted, open one's heart, tender-hearted, warm-hearted, whole-hearted 등의 어구는 한결같이 따뜻하고, 관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다는 표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입장이 되어서 남을 이해하는 것이 동정심이라는 뜻에서 이런 어구도 사용되고 있다. 즉 in one's shoes, put oneself in another's place, put oneself in another's shoes 등이 있고 다른 특이한 표현 즉, common touch, feel for, good vibes, good vibrations, play upon, take pity 등이 있다. 불가사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에는 미국적인 색채가 농후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어구들이 많다. 특히 I'm from Missouri: show me., (Don't try to fool me, I am suspicious and don't believe what you tell me.)의 표현은 미국의 역사적 및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salt를 소재로 한 take with grain of salt 혹은 take with a pinch of salt는 to accept or believe only in part 혹은 take with a pinch of salt는 to accept or believe only in part 혹은 not accept too much 라는 뜻으로 쓰이며, stock를 사용하여 take no stock in 혹은 put no stock in 이라는 어구를 쓰며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He took no stock in the idea that women are better cooks than men 등이 있다. 걱정은 신경을 쓰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nerve를 소재로 한 nerve-racking, nervous in the service, nervous Nellie 등이 있으며 butterflies in one's stomach는 걱정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 안에서의 구역질나는 느낌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심한 걱정이나 신경질적인 긴장을 가질때의 위 속에서의 안절부절한 기분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sixties와 seventies는 걱정스러운 혼란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우리말의 바늘 방석에 앉아 있다는 어구처럼 on pins and needles이 있고 걱정을 하면 머리카락이 백발이 된다는 말과 유사한 give gray hair도 있다. 이외에 at loose ends, at one's wits ends, beside oneself, off one's head, on edge 등의 어구는 인간의 지혜와 기지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 4. 결 론

Robert. D. Costello는 그가 편집한 American Expression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Colorful expressions are the spice of language. Without them, English would be greatly impoverished and much less effective. Clarity in the presentation of ideas or the description of people and events is essential but it is generally not enough. It is colorful expression that brings things to

life, that conveys feeling and that heightens persuasiveness.

위의 인용문처럼 미국식 표현은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정서와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인의 정서생활을 묘사하는 표현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서를 묘사할 때 제일 많은 것이 생리학적인 현상이다. have one's heart stand still, scare stiff, blue in the face, foam at the mouth, burst a blood vessel, ears burn, change color, white with fear 등이 있다. 그리고 과장된 표현에는 이런것이 있다. 즉 have one's heart in the mouth, scare the daylight out of, hit the ceiling, hit the roof, jump out of one's skin등을 들 수 있다. 직유를 쓰는 표현도 약간 있다. 즉 mad as a wet hen, mad as hops, feel like a million, feel like a million dollars, pleased as punch, shake a leaf, like a cat on a hot tin roof 등이 있다. 은유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즉 heart of gold 등이 있다.

